

주요기사 해설

2007-08-23

● 중국 금리인상 영향 없어

올 들어 4번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증시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금리인상이 기습적으로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호전과 개인들의 간접투자 확산으로 인한 자금유입으로 시장의 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 제한으로 글로벌 증시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증시, 미 동조화 현상 심화

국내 증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이후 미국증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와 코스피지수의 상관계수가 지난 22일 0.57까지 상승하는 등 지난 4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미국 내 투자심리 안정화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며 또 다른 해외 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당분간 국내증시 역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기관, 공격적 매수는 아직..

대다수 기관투자자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위험상승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대한 자금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21, 22일에 걸쳐 1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0개 기관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6개 기관은 주가지수가 1500-1600대로 떨어지면 공격적으로 매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5개 기관이 외국인이 현재 추세처럼 매도하고, 기관투자자들도 현재 추세처럼 매수한다면 보유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20주 이상 매수할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